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주홍글자』에 나타난 페미니즘적 요소



2009년 8월

부경대학교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안미정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주홍글자』에 나타난 페미니즘적 요소

지도교수 박 양 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영 어 영 문 학 과

안 미 정

안미정의 문학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9년 8월 26일



주	심	문학박사	손 달 레	인
위	원	문학박사	권 영 희	인
위	원	문학박사	박 양 근	인

목 차

I. 서론	1
II. 시대적 배경과 호손의 생애	7
III. Hester Prynne에 투사된 여성주의	13
IV. 상징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석	4
V. 결론	57
참고 문헌	61

Feministic Factors in Hawthorne's 『 *The Scarlet Letter* 』

Mi Jung Ahn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sit Hawthorne's perspective of feminism in *The Scarlet Letter*. This study tries to read and to re-assess the works of Nathaniel Hawthorne, a representative novel in the 19th century Woman Movement, from a feministic view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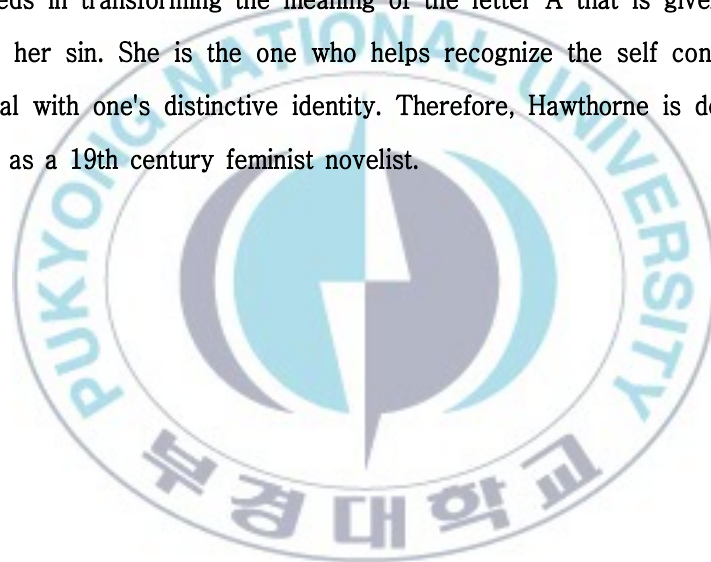
Hawthorne used the past of New England as the background of his works. *The Scarlet Letter* revealed Hawthorne's reaction to the 19th century Woman movement and Puritanism. He described the difficulties and the discrimination in life of a female in *The Scarlet Letter*, but He tried to prove the importance of the female life through his works.

Puritans in New England had deep religious aspirations and very rigid laws particularly in dealing with sinner. Puritans came across the ocean to enjoy religious freedom and found theocracy in the new land. But they put emphasis on the laws rather than love for others, so the severity of this society gave birth to a big tragedy.

Although Hawthorne was an inheritor of Puritanism, he criticized the severity of Puritan society and sympathized with the women's suffering from the consciousness of sin. He could express his thoughts through the work of moral allegory and hide it behind his symbo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eminism in *The Scarlet Letter*. First, I studied Puritanism to know the historical and social background of Hawthorne's work and life. Second, the process of the feminist movement by the Hester Prynne. Third, I researched the Hawthorne's feminism of symbolism in *The Scarlet Letter*.

In the conclusion and at the base of this response, Hester is the first heroin that represents the liberal ideal, feminism, and the equality of men and women. She becomes gradually transfigured into a progressive woman. and Hester is a woman who succeeds in transforming the meaning of the letter A that is given to her as a symbol for her sin. She is the one who helps recognize the self consciousness as an individual with one's distinctive identity. Therefore, Hawthorne is deserved to be understood as a 19th century feminist novelist.



I. 서 론

나다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e)의 『주홍글자』(*The Scarlet Letter*)는 호손의 대표적인 소설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 졌고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품이면서, 이후의 소설에서 되풀이하여 다루게 되는 핵심적인 주제와 인물을 제시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호손의 페미니즘’은 현재까지도 학계의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호손은 자신의 여성관을 작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왔지만 호손을 페미니스트로 보는 시각과 그것과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면서 비평가들에 의해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호손 작품의 여성인물의 진보성과 개혁성 때문에 많은 비평가들이 호손을 페미니스트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으며, 반면에 드셀보(Loiuse DeSalvo)는 호손을 안티 페미니스트(anti-feminist)이며 여성혐오주의자로 보았다(38). 또한 중립적 견해를 가진 포엘부드(Poelvoorde)는 “신중한” 페미니스트로 평가했다(54). 호손에 대한 여러 가지 상반된 평가는 작품 속에서 그가 여성인물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거나, 이중적인 결말을 취함으로써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게 되었다. 비평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필자는 호손이 살아온 배경을 통해 주변여성들이 호손의 여성관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선행 연구한 후 그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자 한다.

1960년대 후반기 미국여성운동을 배경으로 일어난 페미니즘 비평은 케이트 밀레트(Kate Millet)의 『성의 정치학』(*Sexual Politics*)을 시작으로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특히 셰리 레지스터(Cheri Register)는 페미니즘 비평을 3단계로 나누었다. 제1단계는 여성 이미지 분석, 제 2단계는 작가들에 대한 기존 비평의 재분석, 제 3단계는 다양한 새로운 이론의 대두로 간주 하였다(2). 호손 작품에 대한 비평도 이 같은 관점으로 정리될 수 있다.

호손의 『주홍글자』는 제1기 미국여성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던 1950년에 발표되었다. 그 당시 미국 사회는 노예제의 폐지운동과 여성해방운동 등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로 이어지는 여성운동은 최초로 정치분야에서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던 여권운동이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여성상이었던 참한 여성상은 현실적인 여성상으로 여성들의 영향력을 가정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시켜나갔다. 당시 집필되었던 호손의 작품들에서 여성인물은 다양하고 발전적인 여성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19세기 여성운동에 대한 호손의 반응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19세기 중엽 미국사회의 시대적 배경으로 호손의 여성관이 잘 반영된 『주홍글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더욱 작품 속에 작가정신과 시대상이 잘 융합되어 나타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호손의 주변여성을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살펴보면, 알린 터너(Arlin Turner)는 『나다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e*)이라는 비평서에서, 호손은 여성에 의해 성장했다고 지적한다(17). 특히 호손에게 큰 영향을

준 여성은 어머니(Elizabeth Manning Hathorne)와 큰 누이(Elizabeth)이며, 결혼 후에는 아내 소피아(Sophia Amelia Peabody)가 호손의 여성관 형성에 큰 역할을 미쳤다. 가족 이외에도 여권운동가이며 작가인 처형 엘리자벳 피바디(Elizabeth Peabody)와 마가렛 풀러(Margaret Fuller)가 있는데, 호손이 여성에 대한 생각을 넓히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의 살렘(Salem)에서 태어난 호손은 선장이었던 부친의 우울한 성격과 명상적인 기질을 물려받았다. 4살 때 부친이 수리남(Surinam)에서 열병으로 사망하자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맞은 호손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이 자랐다. 모친 엘리자베스 매닝 호손은 친가로 이주했다. 그 후 호손이 14세 때는 로버트 매닝(Robert Manning)의 권유로 메인(Maine)주의 레이몬드(Raymond)로 옮겼다. 이것은 재산이나 생활력이 없는, 3자녀를 둔 28세의 미망인으로서 그들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 곳에서 그녀는 호손 부인(Madame Hathorne)으로 불리며, 이웃과 교류하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했다. 호손 부인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교류가 없던 레이몬드의 이웃도 인정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으나 두 딸은 호손처럼 사랑해 주지 못했다. 이것은 마담 호손의 고립된 성격의 소유자였을 뿐 아니라, 미망인이라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와 경제적으로 무기력했기 때문이다. 개성이 강하고 자주적인 성격의 장녀 엘리자베스와, 여성적이라는 평을 받던 3녀 루이사(Louisa)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두 딸과 어머니 사이에, 그들 자매 사이나 이웃들과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했다.

두 자매는 성장해서 독신으로 살았으며, 또 호손도 독신으로 지내리라고 예상했었다. 그래서 호손이 소피아와의 결혼의사를 밝히자 그들은 놀랐다고 한다. 호손이 대학을 졸업하고 살렘에서 은둔생활을 할 때는, 그 자신도 한 집안에서 가족들과 자주 못 만났다. 그러나 두 누이와 호손의 관계는 좋았으며, 후일 그들은 호손을 도와주었고, 작품에 영향도 주었다. 배임을 비롯하여 많은 학자들은 흑발의 엘리자베스가 성적매력이 있는 『주홍글자』의 여주인공인 헤스터의 전형인 것으로 간주했다.

호손에게 긍정적인 여성관을 갖도록 영향을 준 여성은 그의 아내 소피아였다. 병약해서 결혼을 단념했었던 소피아는 고독한 생활에 젖은 수줍은 호손에게 안정감과 위안을 주었다고 밝혀진다. 또 사회경험이 적어서 미숙한 소피아의 태도를 호손은 순진한 태도로 느끼고, 그녀를 포용하였다. 소피아를 사랑함으로써 참된 사랑을 알게 된 호손은 성품이 바뀌고 인성도 더 고상해 졌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타의로 세관에서 면직된 후 어머니의 죽음을 겪고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the darkest hour I ever lived)이라고 표현하며 상심하는 호손에게 최초의 장편이자, 불후의 명저인 『주홍글자』를 쓸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이다.

터너는 호손의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아내에 대한 사랑을 상세히 밝혔을 뿐 아니라, 호손이 마가렛 풀러, 엘리자벳 피바디, 그레이스 그린 우드(Grace Green Wood)와 아는 사이지만, 호손은 그들을 그다지 평가하지 않았고 풀러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다고 주장한다(17). 하지만 토마스 미셸(Mitchell, Tomas)은 『호손의 풀러 미스터리』(*Hawthorne's Fuller*

Mystery)에서 호손이 폴러와 관계가 좋지않다는 주장을 뒤엎으며 폴러의 급진적인 사상, 특히 여권신장이나 결혼에 관한 사고가 호손의 작품 속에서 여성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며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했다 (169-170).

호손이 작품을 썼던 당시의 미국 여성들은 대부분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 일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회 참여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던 만큼 극히 제한된 삶을 살고 있었다. 당시의 주된 종교관인 청교도주의는 남성은 여성 위에 군림해야만하며 여성들은 육체적, 정신적 둘 다에서 전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해야 하는 피동적인 존재로 이해하였다. 남성들은 여성들을 자신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존재로 간주하였고 이러한 남성우월사상은 오늘날까지도 변하지 않고 남아서 많은 여성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19세기 남성작가인 호손 역시 이러한 남성우월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을 것이며, 때때로 그의 여성관에 모호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인정이 된다. 그러나 호손은 여성의 희생을 당연한 의무라고 여겼던 당시의 미국작가들 중에 여성들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고 여성의 심리를 파악하였던 드문 작가 중의 한명이었다. 그의 작품들 속에서 호손은 심정적으로 여성인물들에 대해 연민과 애정을 보내면서 남성인물들에 대해서는 오만함과 자만심을 버리기를 촉구하고 여성들에 대해서는 너무 급진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로움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를 갖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때 호손은 남성과 여성이 꿈과 현실 속에서 추구하는 그들의 욕구를 이해하였으

며 누구보다도 남녀 간의 조화로운 관계에 관심을 가졌던 작가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호손은 당대의 다른 남성작가들과 구별된다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미국여성운동을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고 호손이 성장하면서 영향을 받은 주변여성들을 『주홍글자』의 주요한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간주하여 그 결과 형성된 그의 여성관이 이 작품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면서 호손의 페미니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홍글자』의 헤스터를 통해 나타난 이 새로운 여성상은 19세기 과도기에 부합하여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여성으로의 새로운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는 호손의 당시 사회속에서 여성에 대한 사고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부연하자면, 본 논문의 목적은 호손이 『주홍글자』를 쓰게 된 시대적 배경을 통해 호손의 여성관이 『주홍글자』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면서,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호손의 페미니즘을 재고해 보는 것이다.

이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II장에서는 『주홍글자』를 쓰게 된 시대적 배경과 호손의 생애를 바탕으로 주변여성들이 호손의 여성관과 작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본다. III장에서는 『주홍글자』의 주인공 헤스터 프린을 중심으로 살펴면서 호손의 여성관을 알아본다. IV장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를 통하여 페미니즘적 접근을 제시한다. 그리고 V장 결론에서는 헤스터를 통해 나타난 여성상을 중심으로 호손의 페미니즘과 그 전망을 제시한다.

Ⅱ. 시대적 배경과 호손의 생애

『주홍글자』는 ‘미국의 특권의식’과 진보사관, 그 중에서도 17세기 초 선조들을 진보된 새로운 인간으로 간주하는 당대의 합의를 호손이 재검토 해준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과연 모순과 갈등이 없는 역사만 있는가, 아니면 다른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작품 분석을 통해 답해야 할 과제로 염두에 두고, 당대 미국 상황에 대한 그 시대적 배경과 호손의 생애를 알아보기로 한다.

호손이 작품 활동을 시작한 19세기 전반기는 미국에서 노예 폐지 운동과 함께 여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때였다. 당시에 두 운동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적지 않은 여성이 양쪽에 가담하였다.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그림키(Grimke) 자매인 안젤리나(Angelina)와 새라(Sarah)이다. 남부의 노예소유주의 귀족가문에서 자랐으면서도 두 자매는 관습에 도전하여 남부에서 뉴욕으로 와, 공공장소에서 대중 연설을 하였다. 1838년 뉴잉글랜드(New England)에 가서도 연설을 하지만, 자매가 남녀 혼합의 청중 앞에서 연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노예 해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던 윌리엄 개리슨(William Garrison)은 중요 문제에 관해서는 여성도 남녀 혼합 청중 앞에서 연설 할 수 있다며, “자유 연단”(Open Platform)을 인정하고 그림키 자매를 변호하였다. “물론

이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1839년, 여성이 개리슨 쪽으로 모여들자 미국 반 노예제 협회는 이 문제를 에워싸고 분열하는 소동을 벌였다. 그 때 의식이 깨어있는 여자들이 알게 된 것은 노예의 처지와 여성의 처지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었다. 남성이 권위에 안주하고 있는 동안 여성은 법률이나 정치의 면에서 전혀 권리를 보호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Ronald 105).

그 뒤 1848년에는 엘리자베스 스탠튼(Elizabeth Stanton) 과 루크레시아 모트(Lucretia Mott)가 뉴욕의 세니카폴스(Seneca Falls)에서 미국 최초의 여성권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 그들은 “감정 선언”(Declaration of Sentiment)을 발표하고 독립 선언을 본떠서 모든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고 선언한다. 이후 여권 운동은 당시의 중요한 개혁 운동의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이때부터 평범한 여성들도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으며 급속도로 자신들의 해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1970년 무렵에는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여성운동이 일어나서 NOW(National Organized of Woman)라는 여성 해방운동 조직이 성립되는가 하면 로빈 모건(Robin Morgan)에 의해서 여성해방운동에 관한 서적이나 강연에 대한 것을 묶어 놓은 『자매는 강하다』(*Sisterhood Is Powerful, 1970*)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페미니스트 문학작품의 비평은 주로 사회적, 정치적 변화와 주로 관련된 투쟁의 한 분파라고 볼 수 있다.

초기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의 계획 중의 하나는 남성작가들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여성인물들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지배적인 가부장적 전통에 의해 압박받고 잘못 인식되어져 왔던 여성들을 드러내고 이런 여성들의 모습을 남성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분석하고 연구해왔다. 또한 그들은 전통적으로 훌륭한 문학비평으로 간주되어 왔던 것에 의문을 품었으며, 그런 비평들은 부르주아적 백인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보고 이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보이며 그들만의 비평을 연구한다. 그리하여 지배적인 남성문학의 전형을 파괴하고 여성을 침묵시키고 제외시켜버린 전통을 바꾸려는 노력 하에 새로운 여성규범 체제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그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보편적이었던 이전의 개념들이 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문화에서 기인한 것임을 깨닫고 여성의 경험과 문화의 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넓혀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자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구조로부터 오히려 여성을 해방시켜 세상을 바꾸려 했다.

호손의 여성 인물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 따라서 이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호손의 주변 여성들이 어떤 활동을 하였으며 그와 그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호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호손의 어머니는 전기에 따르면 아름답고 온화하고 정숙한 여자였다. 그러나 남편을 여윈 뒤 형편이 어려워져 세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당시 그녀는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다소 무능한 미망인으로 남게 되어 어려운 환경에서 가족과 차단된 은둔생활을 했다는 설도 있지만 최

근에는 이를 뒤집고 그녀가 유년시절부터 호손에게 많은 시와 로맨스, 우화 등을 읽도록 지도하였고 문학적 감수성을 더하도록 도와 준 자상하고 사려 깊은 어머니였다는 주장도 비평가 매닝 호손(Manning Hawthorne), 마크 반 도렌(Mark Van Doren), 글로리아 엘릭(Gloria C. Elrick), 란셀 스트왓(Randsall Stewart)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호손은 특히 그이 누이 엘리자베스와 친했는데, 어릴 때 함께 놀고, 초등학교에 함께 입학했고, 후에 기숙학교와 대학교부터는 서로 서신왕래하며 지냈다. 그녀는 일생동안, 작가로서 호손의 직업에 “열렬한”(possesive) 관심을 가졌다(Turner 17). 그녀는 호손이 글을 쓸 때도 거들어 주었고, 호손이 소피아와 약혼하기 전 몇 년 동안 호손의 공동작업자이자 교정자 역할도 했다. 엘리자벳은 호손 부모가 결혼한 지 단지 7달 만에 태어났다. 이로 인해 호손 집안에서는 분노를 하였고 동네에는 많은 소문이 떠돌았다. 호손은 그의 어머니편 집안 가족과의 소외에서 비롯된 외로움과 아픔을 알고 있었다. 호손의 어머니는 『주홍글자』를 쓰기 몇 주 전에 사망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호손은 어머니가 시집 식구들에게 받았던 멸시 등을 생각하여 연민을 느껴 결국 『주홍글자』의 헤스터 프린에게 연민의 태도를 취했다고 본다. 비평가 베임과 일부 학자들은 호손 어머니를 후에 『주홍글자』의 헤스터 프린의 전형으로 간주했다. 베임은 『주홍글자』는 “호손의 자서전은 아니지만, 호손은 그 속에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었고, 다음 작품을 계속 쓸 수 있는 동기와 자유까지 갖게 되었다” 고 한다(1982. 8-11).

호손이 어머니와 더불어 호손의 문학세계에 풍부한 영감을 불려 넣어 주었던 여인이 바로 그의 아내 소피아이다. 호손과 소피아의 결합은 남성과 여성의 이상적인 결합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였다. 그녀는 호손 문학의 열정과 창조력을 외부세계와 접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었다. 예를 들면 호손이 세일럼 세관에서 면직 되었을 때 작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 어머니가 사망한 뒤 상심에 젖어있던 호손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불후의 명작인 『주홍글자』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호손의 작품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호손은 그녀의 반응을 중요시하고 조언을 신중히 듣고 나서 작품에 참작하기도 하였다. 그녀가 『주홍글자』의 끝 부분을 듣고 비극적 상황에 두통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 호손은 아내의 반응을 통해 작품의 성공을 짐작했다.

이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아들 줄리안(Julian)은 자신의 어머니 소피아는 아버지 호손에게 끊임없는 주제였으며 가장 사랑스러운 관찰의 대상이었고 이들의 관계는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구현화하는 관계였다고 회고하였다. 자신의 내면에 소피아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편지에서는 이상적인 양성의 결합관계를 살펴 볼 수 있다.

퍼슨(Person)의 표현대로 소피아는 호손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새롭게 찾아낸 또 다른 자아였던 것이다(213). 호손과 그의 아내 소피아의 결합은 남성과 여성 간의 이상적인 양성의 결합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관계였다.

따라서 호손의 이상적인 여성관은 그의 아내 소피아를 통하여 잘 조명

되고 있다. 소피아와의 결혼은 분명 호손의 정서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으며 어느 면에서 서로 상반되는 두 성격이 서로 보완해주는 아주 행복한 결합이었다. 소피아는 호손을 성인다운 열정과 창조력의 통로로 향하게 하도록 도와주었으며 세상에 드러내기를 기피했던 그를 외부세계와 접촉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 구원의 여인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한 인간으로서 사랑했을 뿐 만 아니라 상대방의 특질을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였다. 호손은 자신의 창작의 힘을 소피아가 주는 여성의 힘과 제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여성의 힘이란 자아도취적인 자기이미지(self image)가 아니라 자유로운 또 다른 자아(other-self)로서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다(Person 220).

전통적으로 남성작가들이 여성을 자율성이 부족한 부차적인 인물로 기정사실화 해놓고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해버렸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호손은 소피아를 수동적인 대상으로 생각지 않고 진정으로 그녀의 자율성을 존중하였다. 그는 소피아의 깊숙한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였으며 그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력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호손의 여성지향적인 특질은 유년기와 소년기를 여성주도인 가정환경에서 지냈던 그의 성장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아버지를 일찍 잃은 호손은 어머니, 두 누이와 여성주도적인 가정환경 가운데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그들의 기질 그리고 사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 등에 관해 면밀하고 깊숙하게 관찰 할 수 있게 된다. 이 여성들은 후에 그의 작품 가운데에서 여러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다. 특히

호손의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유년시절부터 호손에게 많은 시와 로맨스, 우화 등을 읽도록 지도하면서 일찍부터 그가 문학적 감수성을 키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호손이 작품을 썼던 당시의 미국 여성들은 대부분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 일을 하는 것 이외는 거의 다른 사회참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만큼 극히 제한된 삶을 살고 있었다. 당시의 주된 종교관인 청교도주의는 남성은 여성 위에 군림해야하며 여성들은 육체적, 정신적 둘 다에서 전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해야하는 피동적인 존재로 이해하였다. 이 같은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호손만큼 여성들이 지닌 특질을 잘 이해하고 수용한 작가도 드물 것이다. 그는 전통적으로 전형화 되어버린 여성의 모습에서 벗어나 여성의 마음과 정신을 이해하고 표현한 작가인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남성과 여성 둘 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작가가 될 수 있었다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호손은 그 시대의 다른 남성작가들과 구별된다. 따라서 호손의 작품에서 우리는 그동안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신여성인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Ⅲ. Hester Prynne에 투사된 여성주의

호손의 4대 장편 『주홍글자』, 『칠박공의 집』 (*The House of the*

Seven Gable), 『블라이드데일 로맨스』(*The Blithedale Romance*), 『대리석 목양신』(*The Marble Faun*)에 나오는 여성 인물들은 비평가들에 의해 흔히 ‘흑발여인’(dark lady)과 ‘금발여인’(fair lady)으로 분류된다. 헤스터(Hester), 제노비아(Zenobia), 미리암(Miriam) 등이 흑발여인으로 간주된다. 외모부터 후자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인물들이다. 후자의 금발여인에 속하는 포비(Phobe), 프리실라(Priscilla), 힐다(Hilda) 등과는 반대로 머리가 검고 육체가 풍만하여 동양적이거나 당당한 풍모를 지닌 여자들로 나타난다. 기질에 있어서도 후자와는 대조를 이루어 오만하거나 정열적인 모습을 띤다. 이 때문에 그들의 운명은 순탄치 않다. 순수하고 흠없이 살아가는 후자여성과 달리 이들은 죄를 짓거나 도덕률을 어긴다. 다른 한편으로는 흑발의 여인들은 자아가 강한 여자들로서 자아에 눈을 뜨고 이를 확립해 간다.

호손의 장편에 나오는 여성인물들 중에서도 헤스터는 가장 강인한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억압적 환경을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변모하는 여성상으로서의 헤스터는 점차 진보적이고 발전된 여성상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그녀 역시 호손 초기작품의 여성인물들처럼 소설 초반에는 다른 여성인물들처럼 희생당한다. 간통한 상대를 밝힐 것을 촉구하는 청교도 사회에 대항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헤스터에게서 굳은 신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헤스터가 아기를 안고 단두대에 서서 마을 사람들의 질시 어린 시선을 받는 상황에서도 호손은 헤스터를 “신성한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45)와 연결시켜 성스러운 존재로까지 격상시키고 있다. 물론

헤스터가 이후에 외면적으로 근면, 희생, 봉사의 삶을 살면서 청교도 사회의 율법에 순응하므로 빅토리아조의 전형적인, 순종하는 집안의 천사라는 이미지와 비슷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호손은 그러한 겉모습이 그녀의 혁명적인 정신을 숨기는 위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놓치지 않고 있다. 헤스터는 사회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므로 오히려 “사색의 자유” (112)를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언젠가 좀 더 밝은 시대가 되어 세상의 기운이 무르익어 하느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시절이 오면, 서로의 행복이라기보다 확실한 기반 위에서 남자와 여자의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진리가 드러나리라는 굳은 신념” (185)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헤스터의 고통과 저항을 통해서 헤스터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호손은 마지막 순간에 헤스터의 입을 통해서 자신과 같은 죄 많은 여자가 아닌 순결한 여인이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물려서게 만들어 지금까지의 성과를 부인하고 있다. 그로 인해 헤스터를 처형대에 세웠고 사회의 범주 밖으로 추방한 청교도사회는 호손에 의해 확신과 권위를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Lewis 112). 결국 헤스터를 끝까지 혁명적인 사고의 주인공으로 만들지 못하고 “모든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 보모, 침모, 어머니, 내조자, 비밀을 털어 놓을 친구, 다정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며 죄를 지은 여자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헤스터의 말로써 호손의 남성 중심적인 사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며 자신이 비판하던 퓨리탄 사회의 권위에 굴복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Leverenz 423). 헤스터는 자신이 예언자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그녀

는 정신적인 여성 예언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 전체를 통해서 구현된 헤스터에 대한 공감을 고려할 때 헤스터를 통해 순결한 예언자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본능적 갈망을 부인하면서까지 새로운 여인상을 구현하려는 호손의 내적 갈등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 작품의 화자는 과연 작가인 호손의 대변인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보고자 한다. 『주홍글자』라는 작품은 이야기 전개에서 등장인물들 사이의 직접적인 대화나 행동을 보여주기보다는 화자가 개입하여 설명하거나 요약하는 방법을 주로 택하고 있는데, 이런 화자의 역할 때문에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화자의 설명에 의존하게 되고 화자의 도덕적인 평가는 바로 작가의 목소리라고 쉽게 생각하게 된다. 물론 3인칭 시점의 소설에서 화자가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반드시 화자가 작가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아무리 화자가 인물들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작가의 생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오히려 화자의 이런 개입을 통해 작가는 화자가 하고 있는 표면적인 이야기와는 또 다른 의미를 전달하려는 의도된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소설의 마지막에서 화자는 고통과 헌신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헤스터 가슴에 있는 ‘A’ 자의 의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 즉 “연민을 느끼고 또 경외감을 가지고 우러러 볼 수 있는 무언가” (177)로 변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헤스터에 대한 이런 평가는 병든 자들

을 찾아가 자신을 희생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일 뿐이고, 그녀가 아무리 마음의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다가올 날에 대해 희망을 준다 하더라도 스스로 결코 예언자와 같은 위치에는 도달하지 못함을 느낀다고 화자는 이렇게 전한다.

젊은 시절 헤스터는 자신이 신의 부름을 받은 여자 예언자일 수도 있다는 헛된 상상을 했었다. 그러나 신성한 임무와 신비스러운 진실은 죄로 더럽혀진 여자에게 나타날 수 없는 것임을 그녀는 이미 오래 전에 깨달았다... 그렇게 헤스터 프린은 말했고 자신의 슬픈 눈동자로 주홍글자를 내려다보았다.

Earlier in life, Hester had vainly imagined that she herself might be the designed prophetess, but had long since recognized the impossibility that any mission of divine and mysterious truth should be confided to a woman stained with sin, bowed down with shame, or even bur-dened with a life-long sorrow... So said Hester Prynne, and glanced her sad eyes downward at the scarlet letter. (204)

이런 화자의 마지막 설명 부분 때문에 많은 비평가들은 헤스터에 대한 호손의 생각은 부정적인 것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길리언 브라운(Gillian Brown), 데이비드 레버렌즈(David Leverenz)나 에이미 랭(Amy S. Lang), Neal 더블데이(Neal Double-day)등은 모두 호손이 헤

스터의 삶을 통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권능을 보여주려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은 19세기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결론짓고 있다고 평한다. 또 포글(Fogle)은 호손이 헤스터를 동정하고는 싫어하지만 자신감이 부족했다(131)고 하는가 하면, 아벨은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특성을 무시한 채 행동했던 헤스터는 스스로 여성다움을 잃었고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을 기만했음을 작가는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300).

그러나 『몰락한 오늘의 에덴』 (*Ruined Eden of the Present*)에서 베임은 이런 아벨의 주장을 반박하여 헤스터가 보여준 행동은 지극히 여성적인 것이며, 그녀가 만약 여성다움을 잃었다면 그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그 사회에 의해 야기된 결과라고 주장한다(49). 헤스터는 병든 자를 돌보고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 가는가 하면 자식을 키우는데 누구보다 정성을 다하며 사랑하는 사람 곁에 머물기 위해 그곳을 떠나지 않는 지극히 여성다운 면모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7년 후 숲에서 덤즈데일을 만나 가슴에 ‘A’ 자를 떼고 모자를 벗자 그 속에 감추어졌던 여성다운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되살아난다. 이처럼 곁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타의에 의한 것이었고 헤스터 자신은 늘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녀는 더욱 성숙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변모했다고 오히려 그녀를 격찬하는 비평가들도 있다. 예를 들어 키이스 메이(Keith M. May)는 헤스터를 사랑스럽고 창조적인 사상가라고 했으며(34), 주디스 프라이어(Judith Fryer)는 독자의 연민과 존경을 자극하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는가하면 (28), 헤일브룬(Heilbrun

Carolyn)은 베임과 함께 헤스터를 가장 진정한 여자 주인공으로까지 격찬했다(62).

그렇다면 과연 헤스터라는 인물에 대한 작가의 생각은 진정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이야기의 시작에서 피해자처럼 보였던 칠링워스와 가해자 격인 헤스터와 딤즈데일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헤스터와 딤즈데일이 오히려 칠링워스로부터 고통받게 되는 구도 속에서 진정 고통 받고 희생당하는 인물은 누구일까? 칠링워스는 9년 전 자신은 남에게 사려 깊은 사람이며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욕심이 없고 또 친절하고 진실하며 정의롭고 한결같은 존재였지만 지금은 악마처럼 변해버렸다면서 그 책임을 헤스터에게 돌리고 있다. 그런가하면 딤즈데일도 자신의 고통은 헤스터보다 더한 것이며 자신의 인생은 오로지 고통뿐이었다면서 7년간의 고통의 책임이 마치 헤스터에게 있는 듯이 “그대에게 이 모든 책임이 있소!” (132)라고 그녀를 비난한다. 그러나 헤스터는 오히려 자신의 고통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감과 연민을 느끼는 좀 더 성숙된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악마처럼 변해 가는 칠링워스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마치 그 주홍글자가 그녀 가슴에서 불타고 있는 듯한 느낌과 책임감을 느낀다 (116). 그런가하면 딤즈데일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며 남몰래 딤즈데일을 괴롭히는 칠링워스에게 자신에게 더 큰 잘못이 있으니 자신에게 복수하라고 애원한다(118).

이처럼 헤스터는 마을 사람들로 부터 소외되었고 멸시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연약한 인간에 대한 연민을 잃지 않으면서 당당

하게 살아온 여성인 반면, 칠링워스와 덤즈데일 두 사람은 자신만 생각하는 인물로서 공개된 헤스터의 고통이 자신들의 숨겨진 고통보다 더 가볍다고 생각하는 이기적 특성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르러 화자는 덤즈데일과 칠링워스를 “서로의 희생자” (175)라고 두 남자를 피해자로 묘사하는가 하면, 줄곧 희생과 봉사로 살아온 헤스터는 ‘여자 예언가’가 아닌 조력자일 뿐이라고 그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먼저 헤스터에게는 펄이라는 존재가 있었기에 여자 예언자에게 생길 수 있는 끔찍한 일을 모면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화자는 이렇게 말한다.

. . .만약 어린 펄이 헤스터에게 오지 않았다면. . .그녀는 앤 허친슨 (Ann Hutchinson)과 함께 종교계에 한 종파의 설립자로 나란히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일생 중 한 시기에 그녀는 여자 예언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아마도 죽음을 겪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 .

Yet, had little Pearl never come to her from the spiritual world, it might have been far otherwise. Then she might have come down to us in his-story, hand in hand with Anne Hutchinson, as the foundress of a religious sect. She might, in one of her phases, have been a prophetess. She might, and not improbably would, have suffered death from the stern tribunals of the period, for attempting to undermine the foundations of the Puritan establishment. . . (129)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여자 예언자가 되지 못한 헤스터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서 소설의 마지막 장에서 화자는 헤스터가 예언자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던 것은 과거에 그녀가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아쉬워하면서 여자 예언자를 극찬하는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 . . 그러나. . . 앞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천사요 사도는 모름지기 여자일 것이로되, 고귀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암담한 슬픔을 겪어서 슬기로워진 것이 아니라 환희의 영적인 매체를 통해 슬기로워진 여성이어야 할 것이다 . . .

The angel and apostle of the coming revelation must be a woman, indeed, but lofty, pure, and beautiful; and wise, moreover, not through dusky grief, but the ethereal medium of joy; and showing how scared love should make us happy, by the truest test of a life successful to such an end! (204)

결국 화자는 헤스터가 앤 허친슨과 같은 예언자가 되지 않고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신의 은총에 의한 것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가 뒤에 가서는 자신의 말을 반복하여 아무리 애를 써도 예언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헤스터의 운명을 아쉬워하고 있다. 이는 바로 화자의 남성중심 사고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써 화자의 이러한 모순적인 논평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 호손의 숨은 의도를 간파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이 소설은 사생아를 낳고서 곳곳이 살아가는 헤스터를 통해 가부장적인 청교도 사회에 맞섰던 한 여성의 운명을 등장시켜 여성 해방의 메시지가 겉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것은 화자의 가부장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은 어머니라는 여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만 구원받는다든가 가부장 중심의 사고로 인해 화자 스스로가 혼란에 빠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헤스터는 무엇보다도 개인으로서의 자아를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녀는 청교도 사회와 대립하는 입장에 있다. 청교도 사회와 대립하여 헤스터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자아의 확립을 위하여 많은 시련을 겪는다. 그러면 헤스터는 왜 그토록 자아를 확립하려고 하는가? 다시 말하면, 자아 확립의 동기는 어디에 있는가? 그 해답은 무엇보다도 딤즈데일에 대한 그녀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 생각해 보면, 헤스터가 감옥에 갇힌 일이나, ‘A’ 자를 가슴에 달고 평생 오욕의 생활을 한 일은 다 사랑 때문이다. 에릭 프롬(Erich Fromm)에 따르면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고 적극적 활동이라 하였다. 흔히 말하는 대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22). 여기에서 주는 것은, 자세히 음미해 보면 타자, 즉 상대방에 대한 “배려, 책임, 존경 및 지식” 등이다.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건 이 요소들을 공통적으로 지닌다. 이런 관점에서 헤스터는 실제로 딤즈데일을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헤스터는 검고 술이 많은 머리카락과 흰한 이마와 움푹 파인 검은 눈이 띄어 인상적인 여자이다. 맨 처음 그녀는 키가 크고 우아한 모습으로 군중

앞에 나타난다. 감옥을 나온 뒤로 이 동양풍의,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헤스터는 치욕의 표시인 주홍 글자 ‘A’ 를 가슴에 달고 대리석과 같은 여자로 살아간다. 그러나 결심하기에 따라서는 평생 수치스럽게 ‘A’ 자를 달고 다닐 필요가 없이 고향 런던이나 유럽 등 다른 곳으로 떠나가, 자유롭게 살 수도 있었다. 그렇게 인적이 드문 외딴 청교도 식민지에 살아야 한다는 명령 따위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헤스터는 이 땅에 머물기를 결심한다. 청교도 사회의 냉대를 받으면서도 이를 견디어 내기로 한다. 결심은 물론 그녀가 불가항력적인 숙명을 느낀 데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숙명의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이를 도저히 끊어 버릴 수 없으며, 따라서 죄를 지은 곳에서 이 세상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자 호손의 해설에 따르면, 이 결론은 “받은 진실이고 받은 자기기만” (57)에 지나지 않고 이 결론에 이르게 된, 더 진실한 이유는 걸으로 드러내기 두려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있다.

자기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그곳에서 살며, 그곳에서 걸어 다닌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두 사람은 이 결합으로 최후의 심판 법정에서 함께 서게 되고 그 곳을 결혼의 제단으로 만들어 끝없는 응보의 책임을 함께 지게 되리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There dwelt, there trode the feet of one with whom she deemed herself connected in a union, that, unrecognized on earth, would bring

them together before the bar of final judgement, and make that their marriage-altar, for a joint futurity of endless retribution. (64)

자신의 내면이 의식의 표면에 떠오를 때마다 헤스터는 소스라치게 놀란다. 이에 대하여 호손은 영혼의 유혹자인 악마가 그녀의 망상 속에 그러한 생각을 끌어넣은 결과라고 설명한다.

바느질 솜씨가 있었던 헤스터는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만들어 주는 일도 한다. 이 일을 놓고 사람들은 그녀가 즐거움을 억제하고 속죄의 고행을 한다고 추측하는데, 호손은 헤스터의 천성 속에 풍요하고 육감적이며 동양적인 특징이 있다면서 그녀의 바느질은 “생명의 정열을...표현하는 방법” (59)이라고 논평한다. 헤스터는 자기를 엄격히 억제하고 있으나 그것은 따지고 보면 그녀의 내면에 강렬한 사랑이 잠재해 있다는 반증이다. 정숙히 순종하는 태도는 겉보기일 뿐,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정열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덤즈데일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헤스터의 사랑은 결코 자기중심적인 것은 아니고 덤즈데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 또한 포함하고 있다. 이미 제1의 처형대 장면에서 그녀는 덤즈데일에 대하여 크게 배려한 적이 있다. 청교도 지도자들이 앉아 있는 단상에서 덤즈데일이 역설적이게도 “죄를 나누었고 또 고통을 나누고 있는” (48) 그 남자의 이름을 밝히려 할 때에 헤스터는 절대로 밝힐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한다. 비평가 드클린 키버드(Declan Kiberd)는 그 이유를 헤스터가 목사와 가깝게 있으면서 “마음속에서 죄를 되풀이 할 수 있기 때

문” (22)이라 하였으나, 그것은 적절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거절에 이어서 헤스터가 자신의 고통 뿐 아니라 딘즈데일의 고뇌까지도 함께 견디겠다고 한 말로 미루어 보면, 그녀의 행위는 딘즈데일을 불명예스럽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처형대에서 딘즈데일을 만난 다음부터 헤스터는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남편임을 비밀에 붙여 달라는 칠링워스의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러한 헤스터의 행위는 동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자기의 애인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보다 큰 죄이다. 그녀가 비밀을 지켜줌으로써 전 남편은 그녀의 애인을 조용히 파멸시킬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성애의 자유와 같은 ‘공적인 죄’ 나 남몰래 사색하는 일 따위의 지적 호기심과 같은 ‘은밀한 죄’ 보다 더 큰, 개인적인 죄를 짓기에 이르렀다. 딘즈데일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 준 것이다. 그러나 헤스터가 전 남편의 정체를 비밀로 해 둔 것은, 알고 보면 그녀 자신이 당한 파멸보다 더 암담한 파멸에서 딘즈데일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양심의 올바른 작용 때문만이 아니라 칠링워스의 무시무시한 계략 때문에 딘즈데일은 몹시 괴로워한다. 헤스터는 이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딘즈데일에게 유대는 물론, 의무까지도 느낀다.

헤스터는 다른 어떤 사람, 온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도 지고 있지 않은 책임을 목사에 관해서는 지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와 다른 사람들을 결합하고 있는 꽃이나 비단이나 금이나 그 어떤 것과의 유대도 이미 단절되어

있었다. 있는 것은 단지 그 사람도 그녀도 끊을 수 없는 공동의 죄라는 철석같은 유대뿐이었다. 다른 모든 연대와 같이 이 유대에도 의무가 수반되어 있었다.

속죄의 나날을 보내면서 헤스터는 청교도 사회의 법도에 따르고 남의 눈총을 맞지 않게 행동도 조심한다. 이러한 동안 그녀의 우아한 모습이 사라지고 외모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옷은 검소해졌으며, 그녀의 풍부하고 호화스럽던 머리카락도 잘라 버렸는지, 아니면 모자 밑에 감추었는지 전혀 눈에 띄지 않게 된다. 그런데도 일찍이 그녀한테서 타올랐던 사랑의 불길이 꺼졌다는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 덤즈데일에 대한 사랑은 “무덤 같은 가슴에 감금” (123)되어 있을 뿐, 헤스터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다.

「목사와 그의 신자」(“The Pastor and His Parishioner”)라는 장에서 두 사람은 친밀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갖는다. 이전에도 함께 등장하기는 했으나 그들이 금지된 사랑을 나눈 사이라고만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이제 두 사람은 둘만의 비밀에 관하여 흥금을 털어놓으려고 한다. 미래의 계획을 이야기하려는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는 긴장감마저 감돈다. 숲 속에서 덤즈데일을 만난 헤스터는 “덤즈데일”, 하고 존칭을 생략한 채 부른다. 덤즈데일이 마음의 평화를 찾았느냐고 묻자, 헤스터는 자신의 가슴 위를 쓸쓸히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나서 두 팔로 그를 얼싸안고 그의 머리를 가슴에 끌어넣는다. 남자의 불이 ‘주홍 글자’에 닿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132) 그녀는 뜨거운 사랑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

헤스터는 가슴 위에 죄의 표시 ‘A’ 를 뚜렷이 새겨 놓았지만, 가슴 속에는 지난날의 정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녀가 딤즈데일을 만나고 싶어 한 것은, 물론 칠링워스한테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딤즈데일이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알게 된 헤스터는 솟구치는 사랑의 불길이 더 심하게 타오르는 것을 억누르지 못한다. 딤즈데일을 “아주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132) 그녀는 칠링워스의 정체를 숨겨온 사실에 대해 용서를 빌며 딤즈데일을 포옹한다. 딤즈데일은 타오르는 정열을 억압하고 있지만, 헤스터는 그것을 숨김없이 표현한다. 그리고 딤즈데일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윽고 두 사람은 지난 일을 상기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주고받는다.

“우리들이 한 일에는 그 나름으로 신성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벌써 잊으셨어요?”

“가만, 헤스터!” 딤즈데일은 땅바닥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천만에. 나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소.”

“What we did had a consecration of its own. We felt it so! We said so to each other! Hast thou forgotten it?”

“Hush, Hester!” said Arthur Dimmesdale, rising from the ground.

“No, I have not forgotten!” (152)

이 장면에서 밝혀지는 것은 덤즈데일이 매우 나약하여 그녀의 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헤스터는 이제 그 곳이 황야가 되었든, 해외가 되었든, 어디론가 떠나자고 그에게 역설한다. 무죄 같이 엄격한 사람들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아마 몇 년 전 두 사람 사이에서 드러냈을, 그러한 정열은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동정에 가까운 감정이 섞인 어조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보스턴을 떠나 어디에 가게 되든, 덤즈데일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뜨거운 정열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다.

흔히 남녀간의 사랑에서는 두 남녀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사랑의 대상인 타자와 자아를 하나의 전체로 보게 되고, 자아는 전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며, 따라서 본래 자아에게 향해 있던 배려도 자·타 전체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옮겨간다. 이러한 원리에서 헤스터는 덤즈데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위험도 무릅쓸 각오를 하고 있다. 헤스터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강한 독립심과 아울러 격렬한 열정을 지녀왔다. 그녀는 결코 청교도는 아니었으며 지난 7년 동안 보스턴 청교도 사회의 정식 구성원이 되어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이곳을 떠나기가 어렵지 않지만, 덤즈데일은 그 반대로 보스턴을 떠날 결심을 쉽게 하지 못한다. 이곳 청교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인 그는 불명예와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맡은 자리에서 떠날 수 없다. 생애를 통하여 단 한번 헤스터와의 정사로 죄지은 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청교도의 법도를 엄격히 따르며 살아온 것이다.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그에게는 그러한 모든 생활을 버리고 가는 일이었다. 그러나 헤스터의 확신에 찬 설득으로 그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녀가 “혼자 가시게 하지는 않겠어요!”하고 안심시킬 때에 마침내 그녀와 함께 새 출발을 하기로 결심한다. 헤스터가 딤즈데일과 같이 가겠다는 말은, 말할 나위 없이 어떠한 고난도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결국 딤즈데일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두 사람의 탈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어도, 딤즈데일에 대한 헤스터의 사랑은 식지 않는다. 처형대 위에서 딤즈데일이 자신의 정체를 군중 앞에 밝히고 그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에 그녀는 “함께 영원한 생활을 할 수 없을까요?” (173)하고 안타까워한다. 이 말에서는 그녀의 끝없는 사랑, 즉 프롬이 말하는 책임, 배려, 존경 등을 느낄 수 있다(15).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딤즈데일 목사에 대한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헤스터는 자유의 주체로서 자아를 확립하고 딤즈데일을 깊이 사랑한다.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연인에 대한 사랑은 오직 나와 너의 일체화만을 희구하며 흔히 세계를 두 사람만이 사는 곳으로 환원시키려는, 폐쇄적인 경향을 띤다. 프롬에 따르면 그것은 “공서적(共棲的) 합일” 이나 “공서적 애착” 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중심주의를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39). 헤스터의 사랑에도 그러한 측면이 있어서 이 점만을 놓고 보면 그녀는 흔히 있는 애정 소설의 여주인공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헤스터의 사랑은 그러한 여주인공같은 사랑만은 아니다. 이성을 사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를 박해한 이웃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며 불행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대해준다. 특히 자식에 대한 모성애를 충분히 발휘하여 펄을 누구에 못지않게 사랑한다. 펄은 그 이름이 가리키듯이 헤스터가 명예와 자유를 잃고 연인 딘즈데일 목사와의 사이에서 얻은 유일한 보물이며, 헤스터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귀중한 존재이다. 벨링엄(Bellingham) 총독과 윌슨(Wilson) 목사가 그녀에게서 펄을 데리고 가려 하자, 사람들이 그녀에게서 뺏어간 모든 것의 보상이라면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

“이 애는 저의 행복입니다!... 펄이 있기에 저는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She is my happiness!... Pearl keeps me here in life!” (78)

헤스터는 펄이 없으면 살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한다. 물론 헤스터의 모성애에는 순수한 무상(無償)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보상을 전제로 한 사랑이라는 측면도 있다. 모성애는 본래 남녀간의 애정과 마찬가지로 사사로운, 닫힌 사랑이며 특정의 타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랑이다. 대상 이외의 다른 사람은 배제하는 사랑이다.

그렇다고 헤스터가 이와 같은 사사로운 사랑만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렇지 않다. 그녀는 억압과 차별을 견디어 온 여성을 사랑하고, 또한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남녀 양성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케이트 밀렛(Kate Millet)에 따르면, 남성은 오랜 역사에 걸쳐 가부장 제도를 써서 여성을 철저히 지배하고 복종시켜 왔다. 그리고 이 제도를 그 어느 인종 차별이나 계급 차별 못지않게 완강하고 확고하며 영속적인 경향을 띤 것으로 만들어, 교묘하게 여성을 내부 식민지화하여 대부분 주변적 시민이 되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지위를 소수 집단과 비슷한 처지에 떨어뜨린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수 집단은 수가 적은 집단이 아니라 육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사회에서 “차별적이며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이러한 소수 집단에 여성이 비유되고 있는 것은 소수 집단의 심리학적 특성이 여성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소수 집단처럼 자기를 혐오하고, 거부하고, 경멸하며 자기네 가운데 어떤 사람이 탈선하면 이를 모질게 비판하기도 한다고 밀렛은 주장한다(33).

17세기 뉴잉글랜드 여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헤스터가 군중에 나타났을때 중년 여자들은 그녀에 대하여 이마에 낙인을 찍어주어야 한다든지, 죽어 마땅하다든지 하면서 비난한다. 그것은 물론 엄격한 청교도 공동체, 넓게 보면 기독교 교회의 도덕률을 대변하는 목소리이다. 일찍이 기독교 교회는 영혼과 정신, 그리고 육체와 실체의 이원론으로 교회이론을 구축하고, ‘영’의 우위를 절대시하는 반면에 ‘육’은 당연히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군중이 헤스터를 비난하는 것

도 무리가 아니다. 그들은 청교도인 동시에 심리학적인 의미에서 소수 집단 일 뿐이다.

헤스터는 비록 소수 집단에 속해 있으나 그들의 특성을 보이는 일이 없다. 여자의 열등한 지위를 숙명으로 받아들여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관념이나 규범에 대하여 성적인 일탈로써 반기를 든다. 이런 의미에서 비평가 색번 버코비치(Sacvan Bercovitch)의 지적대로 “그녀는 사회적 반역자로서의 연인” 이다(632). 헤스터가 이렇게 된 데에는 당시의 시대정신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당시는 호손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 인간의 지성이 해방된 시대였으며 낡은 여러 가지 원칙과 연결된, 낡은 편견의 체계를 타파하고 재편성하는 시대였다. 사회에서 고립해 있는 동안 헤스터는 이러한 시대정신을 흡수하여 처음부터 자신에게 내린 벌에 대하여 전적으로 승복하지 않았다. 공동체에서 추방당했으면서도 뉴잉글랜드에서 계속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녀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 앞서 언급했듯이 그녀가 그곳에서 죄를 지었으니 그곳에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호손은 그녀의 회개가 다소 의심스럽다는 주석을 덧붙이고 있지만, 헤스터는 내면에서 청교도 도덕이 비난하는 것을 신성하게 여기고, 옳다고 강요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헤스터의 외면으로 앤 허친슨(Ann Hutchinson) 같은 자유사상가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색에서는 청교도 제도의 기초를 정복하려고 한다는 죄목으로 사형 당할 만한 일을 하고 있다.

「헤스터의 새로운 생각」 (“Another view of Hester”)이라는 장에서

는 사회에서 추방된 이후 그녀가 기성도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호손은 소설 중간에서 특별히 이 장(章)을 따로 떼어 헤스터의 겉모습이 아닌 참모습, 즉 내면세계를 그대로 열어 보인다. 여기에는 헤스터의 진심, 특히 그녀의 공적인 관심이 잘 드러나 있다. 여성의 생존에 관하여 그녀는 “가장 행복한 여성에게 조차 생존이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하고 회의하고, 더 나아가 모든 여성의 불행한 처지를 통찰하여 똑같은 현실에서도 남자로서 사는 일과 여자로서 사는 일은 전혀 다르다는 인식에 이른다. 지배자로서의 삶과 피지배자로서의 삶, 가해자로서의 삶과 피해자로서의 삶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었다. 헤스터는 마음속에서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는 동시에 항의한다. 헤스터는 여성이 처해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항의하는 데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호손의 설명으로는 실현 가망이 없는 어려운 문제라지만, 헤스터는 마음속에서 현실을 개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 그 방안에 따르면, 첫 단계로 사회의 모든 조직을 파괴하고 새로 건설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남성의 본성 자체, 다시 말하면 남성의 본성처럼 되어버린 오랜 전통적인 습성을 본질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그래야 비로소 여자는 공평하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지위를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 자신이 한층 더 크게 변화해야 한다. 다른 모든 문제의 해결에 앞서 이러한 준비 단계의 개혁을 충분히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다만 여성이 크게 바뀔 경우에 주의해야 할 것은, 가장 진실한 생명이 깃들어 있는 영적인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첫 단계의 방안은 사회 제도를 완전히 혁신하는 일

이다. 당시의 청교, 넓은 의미의 기독교 제도에서는, 남성은 이성의 상징이며 궁극적인 힘의 근원이어서, 남성은 자연을 지배할 뿐 아니라 타고난 권리로 여성도 지배할 수 있다. 이러한 남성 지배 사상에 대하여 헤스터는 내면에서 반기를 들고 있다. 그녀가 생각하는 다음 단계는 남성 우위의 인습, 바꾸어 말하면 당시에 보편화한 남녀 차별 행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남성의 우위가 결코 운명으로 정해져 있거나 영구불변하거나 하지 않으며, 다만 문화적으로 구축되어 있음에 불과하다는 인식과 아울러 신분의 우위를 누리는 남성에게 대하여 자기반성을 촉구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성하고 이를 실천하는 일이다. 남성과 평등하게 있으려면 먼저 여성이 특성을 상실하는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여성이 완전한 존재, 즉 평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자신들을 해방할 때 남성의 지배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헤스터는 여성 차별 구조의 한 복판에서 여성 지위 향상을 염원하고 그 염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점에서 그녀는 남녀 평등주의자 또는 여성 해방론자라 할 수 있다. 헤스터의 믿음은 시대적 상황의 한계 때문에 여성 운동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한다. 호손은 헤스터가 놓인 상황으로 보아 그러한 사색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시사를 하고 있다. 앞에서 헤스터의 내면세계를 열어 보일 때 호손은 주홍 글자가 그 직분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난한 데 이어, 뒤에서도 헤스터가 진리를 전달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헤스터는 청교도 윤리에서 보면, 물론 부정(不貞)한 여자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 ‘부정’을 후회하거나 불운의 탓으로 돌리거나 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운명으로 여긴다. 종교나 도덕에서 강요하고 있는 정절은 그녀에게는 숙명이 아니었다. 숲 속에서 딤즈데일 목사를 만났을 때, 헤스터는 더는 수동적이거나 종속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목사는 되풀이하여 헤스터가 굳센 여자라면서 목사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달라고 간청하지만 헤스터는 목사에게 그 곳을 떠나 새 출발하라고 단호하게 말할 뿐이다.

헤스터는 딤즈데일을 사랑하고 또 차별받는 여성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 뿐 아니라 이웃사람들도 사랑하고 있다. 사실 그녀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아야 할 의무나 책임이 없고, 오히려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미워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헤스터는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물질적으로 돕는다. 펄에게만은 예쁜 옷을 사치스럽게 만들어 입히지만, 헤스터 자신은 검소한 생활을 하며 푼푼이 모은 것을 자신보다 비참하지 않더라도 불운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준다. 사람들에게 최악의 대우를 받는 일이 있어도 그녀는 그들에게 불평하지 않고 순종한다. 자신이 도와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진심으로 미덕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녀는 “자기와 인류가 자매임을 재빨리 인정하고” 그들을 돕는 데에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헤스터의 ‘베품’은 어떤 도덕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아니다. 다만 미덕을 존중하는 진심에서 울어난 것이며, 크게 보면 연대 의식에서 나온 행

위이므로 이 행위는 즐거움이 따르는 덕행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롬에 따르면, 생산적 경향을 띤 사람은 주는 일을 빼앗기는 일이라거나 희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즐거운 경험일 뿐이다.

준다는 것은 잠재력의 최고의 표현이다. 주는 행위에서 나는 바로 나의 강함, 부, 힘을 경험한다. 이 고양된 생명력, 잠재력을 경험하는 데서 나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 나는 자신이 충만해 있고 소비하고 있으며 살아 있다는, 그리하여 즐겁다는 경험을 한다. 준다는 것은 받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다. 빼앗기는 일이 아니고 주는 행위 속에 내가 살아있다는 표현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Giving is the highest expression of potency. In the very act of giving, I experience my strength, my wealth, my power. This experience of heightened vitality and potency fills me with joy. I experience myself as overflowing, spending, alive, hence as joyous. Giving is more joyous than receiving, not because it is a deprivation, but because in the act of giving lies the expression of my aliveness. (19)

비록 작지만 헤스터는 분명히 변화를 일으킨다. 그녀의 꾸준한 노력으로 헤스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관념이 그릇된 것임을 사람들은

깨우치게 된다. 그리하여 세월이 지나갈수록 헤스터는 오욕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헤스터는 이와 같이 고결한 인격 또는 강한 주체적 자아로써 두 주요인물을 비롯하여 주위의 여러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다. 청교도 사회가 아무리 엄하고 냉혹할 지라도 그녀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고 그녀의 가치를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시킨 것은 헤스터가 자유의 주체로서 자아를 확립하고 여성이 차별을 받는 시대에서 이처럼 여성 지위가 향상 될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한다. 이 점에서 그녀는 여성이 남자와 같은 자아와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게 해주는 남녀 평등주의자 또는 여성 해방론자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뉴잉글랜드에 다시 돌아온 헤스터는 비록 앤 허친슨처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 받는 여자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할 때 지혜의 말을 들려준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 해서 A자를 가슴에 달고 살아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벨은 헤스터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며 헤스터의 인생을 만약 성공적인 것이라고 본다면 이는 반항의 승리가 아니라 순종의 승리로 볼 수 있다고 했다(179). 만약 헤스터가 가부장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여성으로 남으려 했다면 펄이 결혼한 후에도 그녀 곁에서 머물면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계속했을 것이다.

다시 이야기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 감옥에서 헤스터가 갓난아기인 펄과 함께 풀려났을 때 그녀는 새로운 생활을 찾아 떠날 수도 있었지만 뉴잉글랜드에 남기를 택한다. 그때 화자는 나름대로 그 이유를 추측해보는

데, 먼저 자신을 죄와 수치의 장소에 묶어두려는 강박관념 때문이거나 혹은 덤즈데일과의 결합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한 다음 조심스럽게 세 번째 이유를 이렇게 짐작한다.

헤스터가 자신이 계속해서 뉴잉글랜드에 살려는 동기로서 스스로 생각한 것, 즉 자신에게 믿도록 강요한 것은 반은 진리이고 또 반은 자기기만이었다. 여기가 그녀의 죄의 현장이었고 그래서 여기가 속세가 주는 형벌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그녀는 혼자 말을 했다. 그래서 어쩌면 그녀가 매일 겪는 수치라는 고문이 언젠가는 그녀의 영혼을 맑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잃었던 것보다 더 큰 순결함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순교의 결과로 더욱 성자 같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다.

What she compelled herself to believe,-What, finally, she reasoned upon, as her motive for continuing a resident of New England,-was half a truth, and half a self-delusion. Here, she said to herself, had been the scene of her guilt, and here should be the scene of her earthly punishment; and so, perchance, the torture of her daily shame would at length purge her soul, and work out another purity than that which she had lost; more saint-like, because the result of martyrdom. (64)

이런 세 번째 이유는 “어두운 곳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뱀” (56)과 유

사한 불경스럽고 위험한 생각이며 어느 정도 자기 기만적인 생각이라는 논평을 화자는 덧붙이면서 헤스터가 떠나지 않는 이유를 이런 세 가지 짐작으로만 남겨두었다. 그러나 소설의 마지막에 그녀의 오두막집으로 다시 돌아와 고통 속에 보낸 세월을 상기시켜주는 ‘A’ 자를 가슴에 달고 여성들의 조언자가 되어 살아감으로써 헤스터는 바로 이 세 번째 목표를 가슴에 품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작품을 통해 호손은 헤스터 프린이라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그려내는데 성공했지만, 후대의 비평가들에 의해 그녀는 천사와 같은 존재에서부터 덤즈데일을 타락의 길로 이끄는 요부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평가를 받아왔다. 헤스터에 대한 상반되는 견해는 소설 속의 사건이나 인물들 사이의 대화를 직접 전달하는 부분과 화자의 도덕적인 논평 사이에는 모순적이지만 모호한 의미들을 내포시킨 호손의 전략이 아닐까 싶어진다.

7년 동안 헤스터가 경험했던 수치심과 절망 그리고 고독과 같은 것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녀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잃고 헤매게 만들었다고 화자는 말한다(136). 이런 헤스터에게 펄은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인물이 되고 있는데, 헤스터 가슴의 ‘A’ 자의 의미와 덤즈데일이 계속 가슴에 손을 얹는 이유를 연관지음으로써 헤스터로 하여금 자신의 과오를 잊지 않도록 늘 상기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헤스터가 히빈스(Mistress Hibbins)를 따라 숲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으로 이런 펄의 역할과 존재의 의미에 대해 헤스터

자신은 이렇게 말한다.

“괜찮으시다면 그[악마, the Black Man]에게 제 변명을 좀 전해주세요!. . .저는 집에서 어린 딸을 돌봐야 합니다. 그들이 만약 딸을 내게서 데려 갔더라면, 나는 기꺼이 당신[히빈스]을 따라 숲으로 가서 악마의 명부에 내 이름을 새겼을 게요. 그것도 내 피로 말입니다!”

“Make my excuse to him, so please you!” answered Hester, with a triumphant smile. “I must tarry at home, and keep watch over my little Pearl. Had they taken her from me, I would willingly have gone with thee into the forest, and signed my name in the Black Man’s book too, and that with mine own blood!” (91)

화자는 곧이어 “이토록 어린 시절부터도 그 아이는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헤스터를 구했던 것이다” (91)라고 덧붙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딸의 존재란 헤스터로 하여금 어머니의 위치를 지키게 하는 것이고 만약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버리고 “여자 예언자”가 된다면 마녀로 몰려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보내진 신의 배려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소설을 앞부분에서 앤 허친슨은 성자로 묘사되고 있는데 만약 헤스터가 앤 허친슨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그녀를 잡아주고 있는 것이 딸이라면 딸은 오히려 헤스터가 성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셈이 된다. 이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헤스터를 구할 수 있는 힘인 동시에 앤

허친슨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그녀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이러니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헤스터에 대한 필의 임무는 결국은 모성 본능을 통해 그녀를 가부장적인 가치관에 묶어두는 것이고, 그녀를 구하고자하는 신의 섭리란 바로 가부장적 가치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헤스터의 인생에 대한 화자의 이런 모순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는 가부장 사회의 의식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앤 허친슨에 대한 언급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아무리 뛰어난 여성일지라도 결코 지도자의 위치에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과, 헤스터의 경우처럼 여성은 아무리 노력한다할지라도 가부장 사회의 규범을 어겨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회적인 통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자의 이런 모순적인 논평을 통해 이 작품은 그 당시 여성의 삶뿐만 아니라 남성중심 사회에서의 남녀 모두의 사고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상징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석

『주홍글자』의 모든 문학적 요소들은 거의 완벽할 정도로 서로 긴밀하

게 연결되어 조화와 통일성이 있는 독특하고도 깊이 있는 문학세계를 이루고 있다. 호손은 자신의 장, 단편에서 청교도 사회의 비정함과 형식으로 치우친 신앙을 비판하면서 인간에 대한 관심을 상징 주의적 수법으로 표현하였다. 호손은 특정 글자나 사물을 반복함으로써 상징성을 나타내고 작품 전체에 걸쳐 일관성 있는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예를 들면 ‘A’ 자를 현대의 독자에게 소개해서 “A자가 어떤 상징으로 이용되었을 때 ‘A’ 자의 의미는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해석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작가는 독자로 하여금 ‘A’ 자의 다원적 해석이 독자의 상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A’ 자를 다양하게 해석함으로써 비밀을 벗겨가는 과정에 독자가 동참 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이처럼 호손은 독자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을 유도시키며 죄를 통하여 인간의 현실을 직시하고 인간의 심리적 갈등을 상징주의와 같은 기법을 통해 현실과 상상의 세계가 서로 융합된 상상적 현실을 로맨스라는 문학 형태로 그려낸 작가이다.

호손은 인간의 원죄를 확신하고 있었던 청교도인들의 도덕적 내면을 묘사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징 기법에 의존한다. 『주홍글자』에서 우화적인 상징수법을 이용하여 현실세계와 환상의 세계를 내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호손의 로맨스가 지닌 성격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호손의 로맨스에는 전통적인 로맨스에서는 볼 수 없는 신화적인 요소, 고딕적요소, 초자연적 요소 등이 다양하게 가미되어 있다. 또한 거기에는 죄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작중 인물들의 고뇌와 상호간 심리적, 내면적 갈등이 빛과 어둠, 색깔의 상징성에 의해 깊이 있게 제시된다.

미국 소설에 있어서 호손이 뚜렷하게 공헌을 한 요인은 바로 『주홍글자』에 있어서 상징성의 사용이다. 이 작품은 미국 소설에서 상징적 수법을 사용한 첫 작품으로 간주된다. 『주홍글자』는 내용이 비극적이며 현대 독자들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상징적인 요소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 인정된다. 그러나 호손은 역사적인 단순한 과거의 기록보다는 그 시대의 인물과 장소에다 그의 상상력을 결합하여 새로운 낭만적 인간의 경험을 표현하였다. 또한 함축적인 상징성과 날카로운 대조를 통하여 밝음과 어두움을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내었고 초월적인 외견상 의미를 표출하기보다는 내면의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

호손의 상징성에 대해 터너는 “『주홍글자』에 나오는 모든 사물은 항상 어떤 다른 것을 상징하고 그 상징을 통해서 의미가 드러난다”고 강조한다(1961: 122).

배경을 나타내는 상징으로는 작품 속에 나오는 ‘A’, 빛과 어둠, 색깔, 형태, 숲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상징들은 작품 구조에 기하학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이룬다. 그리고 이 과정은 대개의 경우에 복합적이다. 주홍글자 ‘A’ 자는 『주홍글자』의 작품 전체를 통일시키는 주제이며 함축성 있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A’ 자는 뜻의 다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그 형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알레고리적인 상징성을 띤다.

가령, 리처드 체이스 (Richard Chase)는 “‘A’ 자가 간통의 상징 이전에 아담의 ‘A’ 를 의미하며 모든 인간은 이 원죄에 관여되었고, 이것 역

시 우리 인간들에게 불가피한 오점이 된다” 라고 덧붙인다(80). 리처드 브로드헤드(Richard H. Brodhead)는 ‘A’ 자는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심리적이며 극적인 깊은 관계”를 형성해간다고 전제하고 나서 ‘A’ 자의 상징적인 의미가 순간마다 다른 의미로 변화하며 다양한 “선택적 해석”을 가능케 한다고 언급한다(49).

반면에 헤스터 프린의 가슴에 붙여진 ‘A’ 자는 간음죄의 상징으로 타락을 의미한다. 윌슨 목사가 ‘A’ 자와 관련된 죄악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군중들의 마음속에 “지옥의 불길”로 형상화시킴으로써 두려움을 자아낸다.

세월이 흐른 뒤에 헤스터는 전혀 다른 여자로 나타나며 가슴에 단 주홍 글자 ‘A’ 는 죄의 표식이 아니라 “능력있는 여자”, 또는 “뛰어난 여자”의 뜻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헤스터는 소설 끝 부분에서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부딪치는 여러 불행한 현실에 직면한다. 영국에서 펄을 결혼시키고 난 뒤 보스턴으로 다시 돌아온 그녀한테 불행한 여자들이 찾아오는 것이다. 상처를 받았거나, 이유도 모른 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려졌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사람을 잘못 만났거나, 정도에서 벗어났거나한 사랑, 그리고 죄 많은 사랑 따위로 괴로운 처지에 있음을 호소하고 의논하기 위해서이다. 헤스터는 최대한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조언해 준다. 그리고 비록 당대의 여성이 남녀 차별 탓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미래에는 남녀의 관계가 모두 서로의 행복을 기초로 마주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안겨 준다. 스스로 예언자가 되기로 한 그녀는 이 문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헤스터는 비록 조직적인 여성 운동은 전개하지 않았으나 개인적으로는 여성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이로 말미암아 여권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 이때 ‘A’ 자는 타락한 죄의 상징이 아니라 그녀가 죄를 범했다기 보다는 죄를 덕으로 승화시켰음을 강조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승리의 상징을 뜻한다.

그녀 [헤스터] 는 사회나, 본인이 다 이런 결과가 되리라고 예상치도 않았건만, 자진해서 ‘자선의 수녀’ 가 되었다. 아니, 어느 틈에 사회의 근심 어린 손길이 그녀를 이런 직분에 임명했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지도 모른다. 주홍글자는 그녀의 천직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헤스터는 —일을 하거나, 동정심을 갖는 많은 능력을 발휘하여—남에게 유익함을 주었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주홍글자의 A자를 본래의 뜻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들에 의하면 그것은 ‘유능한’ 이란 의미를 지녔으며, 여자의 강인함을 지닌 헤스터 프린도 그와 같이 강인했다.

She was self-ordained a ‘Sister of Mercy’, or, we may rather say, the world’s heavy hand had so ordained her, when neither the world nor she looked forward to this result. The letter was the symbol of her calling. Such helpfulness was found in her, —so much power to do, and power to sympathize,— that many people refused to interpret the scarlet A by its original signification. They said that it meant Able, so strong was Hester Prynne, with a woman’s strength. (161)

아서 덤즈데일과 헤스터와 딸 펄이 함께 처형대 위에 서 있는 그 밤에 나타난 유성은 헤스터 가슴에 있는 ‘A’ 자가 덤즈데일에게는 헤스터와 함께 저지른 죄에 대한 상징으로 타락의 의미를 지니지만 교회 사찰 집사에게는 지사가 죽어서 천사처럼 승천할 것을 상징해주는 천사의 ‘A’ 로 보인다. 벨링햄(Bellingham) 지사의 관점에서 헤스터 가슴에 단 ‘A’ 자는 불룩한 거울 같은 흉갑의 표면에 너무 크게 비춰져서 헤스터가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며 헤스터의 죄를 확대하고 굴절된 시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A’ 자는 헤스터를 지배하고 구속하며 철저히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갑옷”을 상징한다. 펄이 무덤가의 키 큰 우영의 가지 돋친 열매를 따서 만든 ‘A’ 자를 만들어 헤스터 가슴에 붙이는데, 그것은 녹색의 ‘A’ 자이다. “저주를 나타내는 주홍색 ‘A’ 자도 펄에게는 순진무구하며, 순수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또한 비평가에 따라 ‘A’ 자는 “아서 덤즈데일을 나타낸다.” (Martin 22)고 해석하기도 하고, 덤즈데일의 가슴에 나타난 붉은 “주홍빛 오명” (Abel 310)을 상징하기도 한다. ‘A’ 자는 “간음녀, 알파, 아벨, 아담, 아메리카(Adulteress, Alpha, Adam, America)” 등으로 해석(Lawrence 94-95)되기도 하고, “간음, 능력, 애정, 천사 (Adulteress, Able, Affection, Angel)” (Male 117-18)와 같이 해석되기도 하면서 현대 독자들에게 소설이 진행됨에 따라 해석의 다양성을 지니게 된다. 베임은

‘A’ 자는 단 하나의 글자이자, “신비의 상징” (1986: 269)으로서 독자로 하여금 무한한 해석을 가능케 하며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 하였다.

호손은 ‘A’ 자 다음으로, 빛과 어둠의 대조를 빈번히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인물을 묘사하고 있다. 『주홍글자』에서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특이한 색깔을 취한다. 그 색깔에는 도덕적 암시에 따라 빛과 어둠이 수용된다. 죄의 결과로 어두운 소설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빛이 중심이 되는 작품이다.

어두움은 죄를 상징하고 빛은 하느님의 사랑을 상징한다. 작가는 빛과 어둠에 청교도적 상징성을 적용하면서 빛은 천국, 영혼, 깨끗함, 선, 죄 없음, 순수한 양심으로, 어둠은 악과 죄로 사용한다. 어두운 감옥에서 대낮의 장터로 빛이 있는 한낮의 처형대에서 어두운 밤의 처형대로, 어둠침침한 숲 속에서 햇빛 넘치는 시내로, 금실로 수놓은 환상적인 ‘A’ 자를 단 헤스터에서 검은 악마의 모습을 한 로저 칠링워스에게로, 밝고 명랑한 모습의 펄의 모습에서 어두운 밤마다 고뇌하는 딘즈데일에게로, 인간과 자연에 비친 명암의 교차는 로맨스에서 명암의 배분으로써 작품의 효과를 높여 주는 반면에, 암울한 청교도 사회를 빛과 어둠을 사용하여 작품을 구성한다. 빛과 어둠은 “출연과 숨김”을 상징하며 동시에 “명백함과 모호성”(Fogle 76)의 의미를 밝힌다.

각 장마다 햇빛과 밝은 백주 그늘, 어둠, 음산한 어둠이 깔린 황혼과 같이 명암의 교차는 인물들이 처한 환경은 물론 내면의 세계, 심리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빛과 어둠을 통해서 심리적인 사실을 작가는 드러낸다. 헤스터 외모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검고 술이 많은 머리는 햇빛이 반사될 정

도로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 . . 그녀는 머리카락을 감싸고 있던 모자를 벗어 버렸다. 그러자 윤이 나는 검은 머리카락이 그림자와 빛과 함께 풍성하게 그녀의 두 어깨 위로 떨어져 내리면서 그녀의 얼굴은 부드러운 매력을 띠었다..... 그녀의 젊음 그리고 넘치는 듯한 그녀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과거라 부르는 것으로부터 되살아났다....

. . . She took off the formal cap that confined her hair; and down it fell upon her shoulders, dark and rich, with at once a shadow and a light in its abundance, and imparting the charm of soft-ness to her features. . . and the whole richness of her beauty, came back from what men call the irrevocable past,... (158)

헤스터가 아기를 안고 옥문을 나설 때 아기의 표정은 빛과 어둠으로 나타난다. 헤스터의 경우, “감옥 안의 어둠”이 죄의 은폐와 관련이 있다면 아침 햇빛은 그 죄의 폭로와 관련이 있다. 자연 속에서 빛과 어둠의 조명이 집중된 곳은 숲이다. 숲은 청교도들의 도덕적 광야 구실을 한다. 작가는 이러한 숲을 어둠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비밀스런 장소로 나타내고 있다.

호손은 청교도들을 검정색으로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청교도들을 가리키는 나무까지도 어두운 색채를 취하고 있다. 즉 헤스터, 덤즈데일의 모습이

어두운 색깔이었으나 순간적으로 밝은 빛이 비치고 덤즈데일이 처형대에 서 감추어진 그의 죄를 고백할 때 햇빛이 그를 비추어 그의 모습을 뚜렷하게 밝혀준다. 이처럼 유동적인 사물들의 사용은 등장인물의 심리적 변화와 보조를 맞추면서 죄의 심리적인 표현과 어울린다. 덤즈데일은 항상 어둠과의 관계 속에서 묘사되고 있다. 그는 항상 서재의 희미한 빛에 익숙해져 있고 자기 죄에 위선을 더할 때 그의 건강은 쇠약해지고 그의 어두운 눈은 고독 속에서 더욱 어두워진다. 그가 헤스터와 만나는 곳도 어두운 숲속이며, “회개의 흉내”가 이루어지는 곳도 한밤의 어두운 처형대이다. 뿐만 아니라 속죄하는 자학행위도 캄캄한 밤에 이루어진다. 덤즈데일이 회개의 흉내를 내고 있는 동안 몇 가지 종류의 빛이 비친다. 그의 외침에 잠을 깨 벨링험 지사의 창가에 램프의 불빛이 보인다. 덤즈데일은 이 불빛에 자기의 노출을 꺼리고 불안해 하다가 램프 불빛이 창가에서 물러나자 비교적 안정을 찾는다. 윌슨 목사의 초롱불, 유성의 “강렬한 빛”은 덤즈데일의 모든 비밀을 들추어내지는 못한다.

덤즈데일이 마지막 처형대 장면에서 그의 죄를 고백할 때 한 낮의 햇살이 환히 빛나고 이때의 빛은 “승리의 밝은 빛”으로 간주된다. 죄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킬링워스는 점점 어두운 모습을 띄게 되어 마침내 검은 상태가 된다. 그와 관련해서는 햇빛에 대한 언급이 한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닿는 곳마다 유독하고 악의에 찬 어두운 모습으로 변한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기형과 함께 불길한 둥근 그림자가 따라 움직인다”는 표현은 복수심의 죄로 말미암아 변해가는 그의 어두운 모습을 잘 부

각시켜 준다. 마침내 그의 모습은 기형이 되어 의사로서 지적, 학문적인 빛은 사라지고 만다. 햇빛은 칠링워스의 죄에 물들은 내면의 세계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는 빛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결국에 그는 지옥에서 온 사람처럼 변해 버리고 만다.

한편 펄의 경우에는 어두운 숲 속에서도 햇빛이 그녀에게 비친다. 펄은 죄의 산물이라는 어둠을 소유하면서도 영적인 결백한 빛과 연관 된다. 그녀는 주홍글자의 살아있는 화신으로서 어두움의 이미지를 지닌다. 펄이 헤스터와 숲 속을 거닐때 햇빛이 처음에는 헤스터에게 비치지만 곧 펄에게 옮겨진다. 헤스터가 죄를 범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햇빛이 펄에게만 비치는 것은 “순수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고 행복으로 충만 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자연의 수용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호손은 헤스터는 어두움, 펄은 빛에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헤스터, 덤즈데일, 펄은 각각 빛과 어두움을 공유하고 있으나 청교도 세계와 칠링워스는 어둠으로 묘사되고 있다.

『주홍글자』에서 등장인물들과 색깔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색깔은 붉은색, 검은색, 푸른색, 흰색 등이 있다. 이 여러 가지 색깔은 자연적인 현상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내면세계를 반영하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 장에 나오는 “문명사회의 검은 꽃” (55)은 도덕적, 심리적 개념, 선과 악을 상징 하고 있으며 가장 주조를 이루고 있는 색깔은 붉은 색과 검은 색이다. “붉은 색의 모호성과 검은 색의 상징적 의미” (Waggoner 132)는 작품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주로 쓰인 색깔을 구분하면 붉은 색은 주홍색, 진홍색, 자주색, 불그레한 색의 색조로 표현되며 그 속에는 선과 악의 도덕적 양면성이 내포되어 있다. 붉은 색인 장미꽃에서는 아름다움과 햇빛과 건강함을 의미하지만 헤스터에게 나타난 주홍색은 간음을 상징하며, 칠링워스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색은 악의 의미로 지옥의 불빛을 상징한다. 검은 색, 어두운 색, 회색은 죄를 나타내는 암흑의 색깔로서 헤스터의 생애, 음울하고 냉혹한 청교도 사회, 그리고 칠링워스를 상징한다. 푸른 색깔은 생동하는 생명과 아름다움을 지닌 도덕적 선을 상징하며 “희망과 재생의 상징은 푸른색, 녹색, 황금색” (Fogle 84)으로 해석된다. 흰색은 아름다움을 의미하며 선을 상징한다. 하늘의 빛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는 월슨 목사의 결백하고 숭고한 인품에서 나타난 흰색은 청결함,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간음을 상징하는 ‘A’자의 색깔이 반드시 주홍색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없고 헤스터가 입고 있는 옷의 색깔과 다른 색깔의 천을 만들어 달도록 되어 있다. ‘A’자의 색깔이 주홍색인 것은 구약성경의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Isaiah 1:18)에서 죄의 색깔로 취한 것으로 보인다.

호손은 양면성을 지닌 인간들이 죄를 범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을 처형대에서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다. 『주홍글자』의 무대가 보스톤이고, 이 무대의 중심은 죄와 고통과 화합의 상징인 처형대이다. 처형대가 이 소설에서 모든 행동의 축이 되어 회전하면서 전개되는 것을 볼 때 실로 이것은 상징성의 완성이라고 여겨진다. 각 처형대는 장면마다 정서적, 도덕적, 그리고 독자들로 하여금 심리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의

미를 지닌다. 처형대는 범죄로 말미암아 오는 갈등과 번뇌, 그리고 고독을 경험하며 결합의 수단인 화해로 이어진다.

처형대는 구조적인 면에서 “헤스터의 청교도적인 도덕적 관념과 딤즈데일의 죄의식의 갈등 및 구원의 단계” (Male 176)로 그 속에 잠재하고 있는 상징성을 드러낸다. 처형대는 헤스터의 죄를 군중들 앞에 폭로하는 장소이며 청교도법의 엄격한 모습을 드러내는 곳인 동시에 “청교도법의 심판의 상징” (Stewart 86)을 나타내는 곳이며 헤스터의 만인 앞에 공개된 죄, 딤즈데일의 드러낼 수 없는 감추어진 죄, 칠링워스의 용서받지 못할 죄를 보여주는 곳이다. 딤즈데일은 “처형대는 한 순간의 평화가 있을지 모른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 밤중에 처형대를 찾아간다. 그는 예배를 보러 갈 때처럼 정장을 하고 깊은 밤에 황량한 시장 터에 있는 처형대에 올라가 죄를 고백한다.

그렇지만 그의 고백은 청교도 교리에 의하면 거짓 자백 및 회개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현대 독자들의 관점에서 살펴 볼 때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딤즈데일은 헤스터의 고행을 흉내내려 하나 그것은 헛된 거짓 흉내일 뿐이다. 물론 작가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명확한 상징적 구성을 드러내는 표현기법을 보여준다. 처형대의 마지막 상징적인 역할은 헤스터와 펄을 딤즈데일 목사가 “착하지 펄, 이제 내게 키스해주겠니?” 라고 외치며 껴안음으로써 결합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펄, 이제는 내게 입을 맞춰 주겠니? 넌 저 숲 속에

선 내게 입을 맞춰 주려고 하지 않았지! 하지만 이젠 그렇게 해 주겠니?
”

펠은 목사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마침내 마법이 풀렸다. 이 야성적인 어린아이도 한몫을 맡았던 이 장엄한 비극의 장면은 그 아이의 동정심을 모두 싹트게 했다. 펠의 눈물이 아버지의 뺨에 떨어질 때, 그것은 이 아이가 인간의 기쁨과 슬픔 속에서 자라서 앞으로는 영원히 세상과 다투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한 여인이 되겠다는 맹세였다. 또한 어머니에게 대해서도, 고뇌의 사자로서의 그녀의 역할도 이제는 모두 끝이 났다.

“dear little Pearl, wilt thou kiss me now? Thou wouldst not yonder, in the forest! But now thou wilt?”

Pearl kissed his lips. A spell was broken. The great scene of grief, in which the wild infant bore a part, had developed all her sympathies; and as her tears fell upon her father's cheek, they were the pledge that she would grow up amid human joy and sorrow, nor forever do battle with the world, but be a woman in it. Towards her mother, too, Pearl's errand as a messenger of anguish was all fulfilled.

딤즈데일은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신 분이요! 특히 내가 고뇌에 허덕이고 있을 때 그 자비심을 보여 주셨소” 라고 언급할 때 처형대의 의미는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가 재결합하는 모

습을 보여주며 작가의 구원관을 예시해준다.

『주홍글자』에서 숲의 상징은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가진 헤스터와 딤즈데일이 만나서 흉금을 틀어 놓은 곳이며 작품 전체 분위기로 보면 어두움으로 덮여 있지만 숲 속에서 잠시 동안이나마 밝은 빛이 내려 쬐이는 유일한 곳이다. 원래 청교도들은 자연의 숲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악, 마력, 도덕의 방황” (Gerber 61)등의 의미로 여기는 반면에 호손은 탈출, 자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호손은 헤스터의 입장을 나타내는 의미로 숲에 비추어 “마음속의 어두컴컴한 미로…황량한 풍경이 있을 뿐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고 묘사함으로써 헤스터의 마음 상태를 반영해 주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헤스터가 청교도 사회를 떠나지 않고 굴욕과 수모를 참아낼 수 있었던 것과 딤즈데일의 초라한 모습과 시들어 가는 영혼과 육체에 “힘없이 죽어 가는 일 이외에는 무엇이든지 하세요!…자, 용기를 내어 힘을 발휘하세요!”라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곳이 바로 숲 속이다. 그것은 또한 억압상태에 있었던 헤스터가 본래의 여성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의미하며, 딤즈데일 역시 그녀의 권유에 따라 새로운 결심을 생각할 때 “기묘한 기쁨의 빛이 괴로운 가슴에 환한 빛을 던져주었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숲 속에서의 빛은 두 사람을 비추고 고통과 번뇌에 시달리는 영혼에게 위안을 준다.

「홀러넘치는 햇살」(“A Flood of Sunshine”)이라는 장에서 헤스터는 딤즈데일과 함께 떠나기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자, 헤스터의 얼굴에는 생기

가 돈다. 그녀는 가슴에 달고 있던 글자를 떼 내어 저쪽 낙엽 속으로 내던진다. 그리고 이전과는 뚜렷하게 다른 사람이 된다. 치욕의 표적을 없애고 난 그녀는 길고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이 안도감은 차츰 그녀의 온몸에 퍼져서 마침내 그녀의 생기는 되살아나게 한다. 그녀가 딱딱해 보이는 모자를 벗었을 때. 숲이 많은 검은머리가 조금도 손상하지 않은 채 본래의 모습대로 드러난다. 그리고 맑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활기찬 모습으로 서 있자 그녀의 젊음, 아름다움, 여자다움이 “마법의 원한과 같은 시간 속에서” 되살아난다. 지금껏 그녀를 비껴왔던 햇빛도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새어 들어오고, 몹시 음울하기만 했던 숲이 유쾌한 곳으로 바뀌어 간다. 숲은 헤스터와 딘즈데일의 복잡한 심정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인간 내부의 복잡 다양한 세계와 인간성의 깊은 저변을 나타내는 도덕적 상징물이다.

“이제 과거는 돌아보지 말기로 해요... 이 가슴의 표시와 함께 나는 모든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찾겠어요.”

“Let us not look back... With this symbol, I undo it all, and make it as it had never been!” (158)

헤스터가 과거의 치욕을 떼어버리는 장소인 숲에서 잠시나마 그 치욕의 모습 즉, 자아의 발견이며 헤스터와 딘즈데일의 새 삶의 희망과 기쁨을 찾은 곳이다. 숲은 로맨티시즘과 청교도주의간의 긴장감을 조화시키며 선과

악을 적나라하게 보이는 곳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상징성의 중심이다.

이 소설이 현대 독자들에게 관심과 주목을 받는 것은 몇 세기에 걸친 이야기가 그 시대의 특정한 상황에만 한정됨이 없이 시간을 초월하여 해석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호손은 인간 본성의 깊이를 그의 문학적 실재로 삼고 죄 의식이 인간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문학적 기법을 통해 인간 내면에 있는 선과 악의 문제를 들추어낸다.

소설 속의 거의 모든 이미지는 상징적인 기능을 지니며 불필요한 요소는 거의 없을 만큼 수많은 상징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해석의 모호성과 열린 결말을 바탕으로 작품의 깊이를 더 해 준다.

『주홍글자』는 계속되는 상징으로 이어지며 극적인 갈등이 전개되는 심리적 로맨스이며 소설의 첫 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미덕의 꽃”(48)과 “문명사회에 피어나는 검은 꽃”을 대조시킴으로써 암울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호손은 『주홍글자』의 마지막 부분에 “검은 바탕 위에 주홍글자 A” 속에 모든 이야기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A’자의 상징성에는 색깔의 상징, 명암의 대조, 작품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융합되어 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상징하는 색깔과 등장인물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논한 것처럼 이 소설에 나타난 많은 상징들은 작품이해에 깊이를 더해 준다. 이 소설이 현대 독자들에게 생명력을 지니는 것도 상징성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설의 이해와 다양성의 의미를 독자들이 선택케 함으로써 현대 독자의 사고와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

이다. 19세기에 만연했던 여성은 가정에만 한정되고 여성다워야만 한다는 신념에 대해서 호손은 역사적 사실과 상상을 통해서 상징들을 창조한다. 결과적으로 상징성의 집결체인 『주홍글자』는 인간심리에 대한 깊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소설이 계속 읽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19세기의 역사적 사실과 호손의 상상을 통해 여러 상징들이 창조되고, 이를 통해 현대 독자들은 상징성이 가능하게 하는 소설의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며, 그 시대의 흐름과, 그 속에 나타난 호손의 페미니즘을 재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징성은 독자들에게 작품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며, 이 작품이 여전히 여러 비평가들에 의해 논의 되는 이유가 된다.

V. 결 론

지금까지 19세기 미국여성운동과 호손의 주변여성이 호손의 여성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대표작 『주홍글자』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호손은 여주인공 헤스터를 통해 다양하고 발전적인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함으로써 호손의 진보적인 여성관을 엿볼 수 있었다.

미개척 땅인 뉴잉글랜드를 찾아 온 청교도들은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꿈꾸며 구세계인 유럽과는 다른 신생국을 세웠고 발전시켰으나, 그들의 문화를 비판 없이 유입한 것처럼 여성관 역시 전통적인 여성관을 고집했다.

신앙심이 깊은 청교도 후손으로서, 청교도 교육을 받고 자란 호손은 내성적이며 수줍은 성격으로 인습과 도덕성을 중시했으며, 전통지향적인 여성관을 견지한 작가였다. 하지만 호손은 유년시절 그의 가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당시 사회의 여성관과 다른 견해를 형성하게 되었다. 어머니와 누이로부터 고립되고 소극적인 성향의 부정적인 영향을, 아내에게서 무한한 서로에 대한 사랑과 힘든 시기를 이겨 낼 수 있는 힘과 용기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다시 말해 소피아가 호손에게 준 영향은 따스한 사랑과 용기였다. 그녀를 통해서 호손은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지녔으며 여성을 남성의 조력자로서, 나아가 헤스터와 같은 용기 있는 여성상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헤스터의 강한 실천력은 변화된 의미의 ‘A’가 잘 반영해준다. 예를 들어 바느질로 생활하고 자립하는 현실적인 여성상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자비의 수녀’ 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어머니 역할까지 한다. 그녀는 혼자 사색하던 모습에서 사람들에게 공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사회개혁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다. 불우한 이웃과 어려운 여성을 위해 상담가로 일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예견하고 자신의 신념을 피력하기도 하는 공적인 여성상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남녀관계와 결혼제도에 대한 전망을 예견하고 새로운 남녀관계의 기반을

구축하는 신여성상도 보인다. 즉 그녀는 폴러나 앤 허친슨 같은 선구적 인물이 되어 자신의 신념을 피력하는 공적인 그리고 신여성의 이상을 재현한다. 결국 헤스터는 청교도 사회의 관습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독창적이고 용감한 진보적 여성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참된 여성에서 벗어나 현실적, 공적인 여성으로 더 나아가 신여성으로 변모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헤스터는 그의 작중 인물로 가장 큰 감동을 주는 여성으로 나타난다. 『주홍글자』로 상징된 그녀의 죄의 첫 글자 ‘A’ (Adultery)가 마침내 천사(Angel)와 능력(Able)으로 승화되기까지 많은 역경과 시련 등의 큰 고통을 겪음으로서 장엄미를 느끼게 하는 도덕적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작품을 통해 호손은 헤스터 프린이라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그려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헤스터의 행동과 언술에는 모순된 면이 나타났고 이런 양면적이며 모순적인 반응은 당시의 호손으로서는 불가피하였다.

이 소설은 그 당시 남성중심사회에서의 여성의 삶 뿐 아니라 남녀 모두의 사고를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페미니스트적인 작품으로 읽혀지는 것이다.

다소 불확실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호손의 결말에서 헤스터의 급진성에 머뭇거리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하지만 이는 당대 실현되지 못한 개혁에 대한 더 강렬한 바람과 이상으로서의 개혁성을 엿

볼수 있다.

이때까지 살펴보았듯이 헤스터가 간통녀에서 천사의 이미지를 지닌 상담자로 변하는 모습은 여성에 대한 호손의 인식의 변화와 연관된다. 사실 호손은 점차 보수적 시각에서 벗어나 진보적인 여성관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홍글자』는 호손의 이후 장편을 페미니즘적 읽기를 가능하게 만드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인 용 문 헌

나다니엘 호손, 『주홍글자』, 김옥동 옮김, 2007.

『성경』. 2005.

Abel, Darrel. "Hawthorne's Hester." *The Scarlet Letter: An Authoritative Text, Essays in Criticism and Scholarship*. Ed. Seymour Gross et al. New York: Norton, 1988. 300-08.

Baym, Nina. *The Scarlet Letter: A Reading*. Boston: Twayne Publishers, 1986.

—. "Nathaniel Hawthorne and His Mother: A Biographical Speculation," *American Literature* 54 (December, 1982): 8-11.

—. "The Significance of Plot in Hawthorne's Romances." *Ruined Eden of the Present*. Eds. G. R. Thompson and V. L. Lokke. West Lafayette: Purdue UP, 1981. 49-54.

Bell, Millicent. *Hawthorne's View of the Artis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62.

Bercovitch, Sacvan "The A-Politics of Ambiguity in The Scarlet Letter." *New Literary History* (Spring, 1988): 629-54.

Brodhead, Richard H. *Hawthorne, Melville and the Novel*. Chicago: U of Chicago P, 1976.

Chase, Richard. *Hawthorne and the Limits of Romance, The American novel and Its Tradition*. Garden City: Doubleday, 1957.

Declan Kiberd, *Men and Feminism in the Modern Literature*. London :

- Macmillan, 1985.
- DeSalvo, Louie. *Nathaniel Hawthorne*. Atlantic Highlands: Humanities P International, 1987.
- Fogle, Richard Haster. *Hawthorne's Fiction: The Light and the Darkness*.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64.
- Fromm, Erich *The Art of Loving*. New York : Bantam, 1972. Fryer, Judith. *The Faces of Eve: Women in the Nineteenth Century American Novel*. New York: Oxford UP, 1976.
- Fuller, Margaret. *Woman in the Nineteenth Century*, 1845. New York: Norton, 1971.
- Gerber, John C. ed.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The Scarlet Letter: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8. 61.
- Hawthorne, Nathaniel. *The Scarlet Letter*. New York; London: W.W.Norton, 1978.
- Hawthorne, Nathaniel. *The Scarlet Letter*. Oxford UP, 2008.
- HeilBrun, Carolyn G. *Toward a Recognition of Androgyny*. New York: Knopf, 1973.
- Leland S Person, "*Hawthorne's Love Letters: Writing and Relationship*." *American Literature* 59 (May, No.2) 1987: 213-220.
- Leverenz, David. "The Ambivalent Narrator of the Scarlet Letter." *The Scarlet Letter*. Norton, 1988. 416-23.
- Lewis, R.W.B. *The American Adam*, Chicago: U of Chicago P,

- 1975.
- Male, Roy R. *Hawthorne's Tragic Vision*. New York : Norton, 1957..
- Martin, Terence. *Nathaniel Hawthorne*. Boston: Twayne, 1983.
- May, Keith M. *Characters of Women in Narrative Literature*. New York: St. Martin's P, 1981.
- Millet, Kate. *Sexual Politics*. New York: Ballantine, 1970.
- Mitchell, Thomas R. *Nathaniel Hawthorne's Fuller Mystery*. Amherst: U of Massachusetts P, 1998.
- Poelvoorde, Jeffrey J. "Women in the Novels of Nathaniel Hawthorne." *interpretation* 22 (1994): 54-67.
- Register, Cheri. *Feminist Literary Criticism*. Ed. Josephine Donovan. Lexington: Kentucky UP, 1975.
- Ronald G. Walters, *American Reformers, 1815-1860*, New York : Hill, 1978.
- Stewart, Randall, *American Literature and Christian Doctrine*, Binghamton: Louisiana State UP, 1958.
- Turner, Arlin. *Nathaniel Hawthorne: A Biography*. New York: Oxford UP, 1980.
- *Nathaniel Hawthorne : An Introduction and Interpretation*. New York: Barnes, 1961.
- Waggoner, Hyatt H. *Hawthorne: A Critical Study*. Cambridge: Harvard UP, 1955.